



# 바른답 알찬풀이

# 1 / 함께 보아요

## (1) 함께 읽고 감상하기

###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8

- 핵심개념 1 내용, 매체
- 핵심개념 2 내용, 형식, 관점, 가치 / 감상, 창의적
- 핵심개념 3 잡일, 유산, 체면 / 인정, 욕심, 이기적, 자립심, 배려 / 제비, 박씨, 비현실적, 바가지, 현실적
- 핵심개념 4 길다, 운율, 고전, 운율, 동화 / 대중, 어린이
- 핵심개념 5 의존, 현대 사회, 노력, 개척, 배려
- 핵심개념 6 피자배출, 소극적 / 탐욕적, 지배층
- 핵심개념 7 권선징악, 우애 / 초월
- 핵심개념 8 꽃가지, 조약돌, 가을, 꽃송이, 징검다리, 자연 / 운율, 소녀, 조약돌, 운율, 소년, 꽃 모자, 친근한 / 사랑

###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9~13

- 01 ④ 02 ④ 03 ④ 04 ㄴ, ㄷ 05 ③ 06 ④ 07 ②
- 08 ③ 09 ㉗: 짧고 / 짧지만, ㉘: 길다, ㉙: 운율 10 ⑤ 11 ④
- 12 바가지 13 ⑤ 14 형제간의 우애 15 ③ 16 ③ 17 ①
- 18 ④ 19 ④ 20 ⑤ 21 ③ 22 징검다리 23 ③

- 01 원작을 재구성하면 이에 반영된 상상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재구성한 작품에 반영된 새로운 상상과 가치 등을 원작과 비교하며 감상한다.
- 02 (가)와 (나)에는 모두 흥부와 놀부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03 (가)에서 흥부가 물려받은 재산을 다 까먹기는 했지만, 이는 돈을 쉽게 써 버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에서 낭비가 심한 놀부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04 나머지는 모두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5 원작인 (나)에서 흥부는 선하고 도덕적이며, 놀부에게 박대당하는 모습이나, (가)에서는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형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진취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흥부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 06 (가)에서 놀부는 흥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로 한다. (나)에서 놀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분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흥부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 났으므로 남에게 도움받을 생각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 07 놀부가 흥부에게 ㉠과 같이 모질게 말한 의도는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 08 흥부 부부는 먹고 살기 위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이었다고 하였다.
- 09 (가)는 현대에 창작된 동화이고, (나)는 고전 소설이다.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와 운율의 유무 등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 10 놀부가 바가지 장수를 통해 흥부가 자립할 수 있게 도운 것은 맞지만, 이는 흥부가 놀부의 공간에 가득한 바가지를 보고 알게 된 것이다.
- 11 당장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에도 남의 집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것은 양반 체면에 말이 아니라고 주저하는 것을 통해 흥부는 경제관념이 없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2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놀부를 원망하던 흥부는 바가지를 팔아 부자가 되고, 누가 더 부유한지 견주어 보려고 놀부의 공간을 열어 봤다가 바가지를 발견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놀부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된다.
- 13 ㉠은 자신을 도와 주지 않은 놀부에 대한 원망, 반발심으로 자신이 놀부보다 부자라는 것을 가려 놀부에게 잘난 체하고 싶은 흥부의 속 좁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는 놀부가 자신을 모진 말로 내쫓고 뒤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왔음을 알게 된 흥부가 미안하고 고마워하며 놀부에게 용서를 비는 부분이다.
- 14 (가)와 (나)는 모두 놀부와 흥부가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하며 결말을 맺고 있다.
- 15 가난한 흥부가 부자가 되는 결말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당시 가난한 백성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부자가 된 흥부의 모습에 백성들은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 16 (나)를 (가)로 재구성하면서 시간적·공간적 배경은 바꾸지 않았다.
- 17 (나)는 선행을 한 흥부는 복을 받고 악행을 한 놀부는 벌을 받는다는 결말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제 몫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과 관련이 있다.
- 18 (나)와 같은 고전이 끊임없이 재창작되는 이유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놀부와 같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은 대부분 지배층이었기에 부정적으로 그려졌으나, 현대에는 놀부를 진취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이라고 재평가하기도 한다.
- 19 원작인 (나)의 일부에 해당하는 <보기>에서는 탐욕스

럽고 심술궂은 인물로 그려졌던 놀부를 (가)에서는 동생 흥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배려심 깊은 인물로 그렸다.

- 20 ⑤는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며, (나)에서는 소년에게 함께 산 너머에 가 보자고 제안하는 소녀의 모습에서 소녀 역시 소년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풀잎새와 예쁜 꽃송이를 이용해 만든 꽃 모자는 '그 애(소녀)'를 위한 것이다. 소녀에게 꽃 모자를 씌워 주고 싶은 마음에 징검다리에서 '그 애'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소녀를 향한 소년의 마음이 나타난다.
- 22 (나)를 통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온 '징검다리'가 (가)의 노래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23 소녀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소재는 (가)에서는 '꽃 모자'이고, <보기>에서는 '조약돌'이다.

## (2) 한 권 읽고 재구성하기

###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14~16

- 핵심개념 1 긴장, 갈등, 불안감, 부끄러움, 괴로움, 죄책감
- 핵심개념 2 율리, 용서
- 핵심개념 3 소재 / 상상, 주체적
- 핵심개념 4 고백, 이해 / 고백, 이해, 정직, 교훈
- 핵심개념 5 평범한, 산책 / 아이스크림
- 핵심개념 6 글, 영상, 표정, 상상, 카메라
- 핵심개념 7 계획서, 방향, 의도 / 대본, 지시문, 시각적 / 스토리보드, 대사, 효과음 / 편집, 촬영, 각도, 동영상, 소리 / 평가, 과정
- 핵심개념 8 시각적, 영상미, 분위기
- 핵심개념 9 가치, 상상, 특성

###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17~21

- 01 ④ 02 ④ 03 개를 찾아 주고 사례금을 받아 집세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04 ④ 05 ② 06 ④ 07 ① 08 율리가 돌아와서 행복하다. 0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조지나의 고백에 너무 놀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14 ⑤ 15 ③ 16 개(율리)를 훔친 것 17 ② 18 ① 19 ④ 20 ⑤ 21 ③ 22 ③ 23 ④ 24 ⑤

- 01 이 작품은 소설로 서술자가 서술한 내용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다. ④는 영상물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 02 조지나는 자신이 율리를 훔쳐 갔던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율리를 원래 주인인 카멜라 아줌마의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주변을 살핀 것이다.
- 03 (가)에서 집세를 낼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차

에서 힘들게 생활하던 조지나는 잃어버린 개를 찾아 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전단지지를 보게 된다. 조지나는 사례금을 받아 집세를 낼 생각으로 개를 훔친 것이다.

- 04 율리는 카멜라 아줌마의 집에 다다르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이리저리 펄펄 뛰고 난리 법석을 피웠으므로, (나)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에서 율리가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가)에서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 집으로 돌아가 잘못을 고백할 것인가를 두고 괴로워하며 갈등하고 있다.
- 06 카멜라 아줌마의 집에서 멀어지는 조지나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모습을 담으려면 멀리서 조지나의 모습과 배경 전체를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 07 조지나의 이성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조지나의 가슴은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가슴이 이겨 버린 것'은 조지나가 잘못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한다.
- 08 카멜라 아줌마는 잃어버린 개가 집에 돌아오자 행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 09 [A]에서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진실을 고백하려 하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곤란해하며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다.
- 10 카메라 아줌마는 조지나가 율리를 데려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조지나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따라서 ⑤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 11 ㉠에서 조지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죄를 저질렀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카멜라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함,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 12 (가)에서 조지나는 잘못을 고백하고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등을 느끼는 상황이고, 율리를 훔쳤다는 조지나의 고백에 놀라고 당황한 카멜라 아줌마는 숨만 거칠게 내쉬는 상황이므로 ④가 적절하다.
- 13 조지나가 왔을 때 카멜라 아줌마의 반응에서 두 사람이 친근하게 지냈던 사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조지나가 율리를 훔쳤다는 말을 듣고 카멜라 아줌마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 14 이미 앞에 제시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고 중요 소재를 중심으로 언급해 이야기를 지루하지 않게 이끌면서 독자가 주체적으로 상상하며 감상하도록 돕는다.
- 15 부인의 유산을 노리는 인물의 등장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갈등 요소가 늘어나고, 이야기가 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 16 조지나는 카멜라 아줌마의 개 율리를 흠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 17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하지만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조지나. 그건 변하지 않아.'라고 명확하게 잘못을 알려 주고 있다.
- 18 ㉠은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물들 사이에 정적이 흐르는 장면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19 ㉡은 카멜라 아줌마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조지나의 무겁고 괴로우며 답답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20 ㉢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고백한 뒤에 용서받지 못한 조지나의 무거운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상처 입은 아줌마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21 조지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가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 22 ㉠은 조지나의 몸이 실제로 떠오르는 장면이 아니라, 카멜라 아줌마에게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조지나의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23 영상을 촬영할 때 해당 장면의 느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지, 카메라의 위치를 먼저 정한 뒤에 장면에 담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24 (나)의 '영상 화면 그림'을 참고할 때 수첩과 조지나의 얼굴을 화면 가득 잡아야 하므로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이 가득 차게 촬영하는 클로즈업 솜이 적절하다.

사이에서 조지나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20 개를 훔쳤다는 죄책감과 카멜라 아줌마에 대한 미안함이 컸기 때문이다. 21 ㉡ 22 ㉡ 23 ㉣ 24 ㉠에서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조지나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으나, ㉠에서는 내일 놀러 오라는 카멜라 아줌마의 말에 조지나가 죄책감을 털어내고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다. 25 조지나를 용서한다는 뜻을 전하려 한 것이다. 26 ㉤ 27 ㉤ 28 ㉢ 29 ㉡ 30 ㉤ 31 ㉣ 32 클로즈업, 제시된 영상 화면 그림과 같이 인물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게 촬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01 (나)에서는 부자였던 놀부가 망하고, 가난했던 흥부가 부유해지지만, (가)에서는 가난했던 흥부가 부자가 되나, 부자였던 놀부가 가난해지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2 (나)에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 얻은 박에서 나온 재물로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이 (가)에서 박을 타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부자가 된 것보다 비현실적이다.
- 03 (나)에서는 박에서 재물이 나와 흥부가 부자가 되고, (가)에서는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흥부가 부자가 된다.
- 04 (가)에서는 행운이 온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05 (나)에서는 흥부가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품을 팔며 애쓰는 반면, (가)에서는 놀부에게 의존할 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 나타난 흥부의 삶의 자세를 비교하여 알맞게 썼을 때	3
(가)와 (나)에 나타난 흥부의 삶의 자세를 비교하여 쓰지 않았을 때	1

- 06 (가)에서 놀부는 동생이 께뻘해서가 아니라 동생의 앞날을 생각해 도움을 거절하기로 한 것으로 그려진다.
- 07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달랐지만 두 이야기 모두 흥부는 결국 부자가 되고, 흥부와 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 08 (가)는 동화이고 (나)는 판소리계 고전 소설이라 문장의 길이, 운율, 단어 사용 등의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 09 [C]는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악한 놀부는 벌을 받는다는 결말이다. ㉡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므로, (나)의 결말과는 관련이 없다.
- 10 (가)에서 놀부는 자신에게 의지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흥부를 나무라고, 흥부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놀부를 원망하며 갈등하고 있다.

01 ㉤ 02 ㉢ 03 박 04 ㉤ 05 흥부는 (나)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나, (가)에서는 형에게만 의존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06 ㉣ 07 흥부가 부자가 된다. 흥부와 놀부가 우애 있게 지낸다. 08 ㉡ 09 ㉡ 10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치고자 흥부의 도움요청을 거절한 놀부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놀부를 원망하는 흥부 사이에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11 ㉢ 12 ㉢ 13 흥부가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부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성공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 흥부가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부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삶의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14 ㉣ 15 ㉠ 16 ㉡ 17 ㉡ 18 ㉠ 19 율리를 돌려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서고 싶은 마음과 율리를 훔친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채점 기준	배점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유형을 포함하여 형식에 맞게 썼을 때	3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을 유형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썼을 때	1

- 11 ㉓은 원작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나)에서 권력으로 부를 이룬 지배층을 상징하는 놀부가 피지배층을 상징하는 흥부를 박대하지만, (가)에서 놀부는 경제관념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12 흥부는 물려받은 재산을 지키지 못하며 경제관념이 부족한 모습과, 체면 때문에 남의 집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자립심 없이 놀부에게 의지하고 형이 도와주지 않자 원망한다. 성공한 후에는 놀부를 모른 채하겠다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조심성이 없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3 (가)에서 흥부는 지붕 위에 열린 박으로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부자가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삶을 개척하는 노력의 가치를 보여 주고 싶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흥부가 부자가 된 과정을 포함하여 형식에 맞게 썼을 때	3
흥부가 부자가 된 과정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썼을 때	1

- 14 원작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표현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주요 사건이나 내용이 달라지면 주제 의식도 달라질 수 있다.
- 15 물려받은 재산을 다 써 버린 흥부와 달리 (가)의 놀부는 재산을 지키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 16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원작에 사용된 소재를 빠짐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소년과 소녀의 짧지만 순수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적합한 소재를 찾아낼 수도 있다.
- 17 이 글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18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고 몰래 율리를 카멜라 아줌마네 집으로 데려다 놓기 위해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행동을 한 것이다.
- 19 카멜라 아줌마네 집에서 멀어질수록 조지나는 자신이 율리를 훔친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갈등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썼을 때	3
갈등의 유형을 밝혀 쓰지 않았을 때	1

- 20 '나'는 이성적으로는 율리를 카멜라 아줌마 집에 몰래 돌려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서는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인해 잘못을 고백하고 싶어 발걸음을 돌린 것이다.
- 21 ㉔은 조지나가 자신이 율리를 훔쳤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말하기를 주저하는 장면이다.
- 22 이 글은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 교훈을 주는 소설이지 부정적 사회 현실을 고발하려는 의도로 창작된 글이 아니다.
- 23 카멜라 아줌마는 예상하지 못한 조지나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 24 카멜라 아줌마에게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고 돌아서는 조지나의 마음은 무거웠으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카멜라 아줌마의 말에 조지나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채점 기준	배점
조지나의 심리를 그 이유와 관련지어 형식에 맞게 썼을 때	4
조지나의 심리를 그 이유와 관련지어 않았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쓰지 않았을 때	2

- 25 카멜라 아줌마가 조지나에게 토비랑 같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한 말에서 조지나가 잘못은 했지만 용기를 내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기에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를 이해하고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6 카멜라 아줌마는 조지나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것이며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 27 원작을 재구성할 때 갈래가 달라지면 그것에 맞게 인물의 말투를 바꿀 수 있다.
- 28 ㄱ.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누구이냐가 사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ㄷ. 영화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ㄴ. 시각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영화보다 소설이 더 상상력을 자극한다.
- 29 영상물은 시각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음향과 같은 청각적 효과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설보다 더욱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 30 영상으로 표현할 때 이야기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화면의 구도나 카메라의 각도를 설정하다 보면 촬영 기법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중복될 수 있다.
- 31 음향은 영상 대본이 나온 후 어느 장면에서 어떤 음향을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 단계에 제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 32 '클로즈업'은 '클로즈업 샷(close-up shot)'이라고도 하며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이 가득 차게 촬영하는 기법이다.

01 ③ 02 ④ 03 ②, ③ 04 ④ 05 (가)에서 놀부는 흥부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배려하는 마음에서 흥부를 내쫓는다. 그러나 (나)에서 놀부는 흥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흥부를 내쫓는다. 06 ④ 07 ③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삶의 가치 13 ④ 14 ⑤ 15 ③ 16 (가)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성공의 가치를 중요시했다면, (나)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중요시했다. 17 변해도 변하지 않는 18 ② 19 ③ 20 반드시 말을 하고야 말겠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21 (라)에서는 월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행복했으나, (마)에서는 조지나의 고백이 뜻밖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22 ⑤ 23 ② 24 ⑤ 25 갈등을 해소한다. 26 ④ 27 ③ 28 ② 29 영상 제작 계획서 쓰기, 자신을 용서해 준 카멜라 아줌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

- 01 (가)에서 놀부는 경제관념을 갖고 재산을 지켜낸 인물로 (나)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넉넉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가)에서 놀부가 물질에 관심이 없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원작인 (나)에서는 흥부가 놀부의 박대에도 형을 원망하지 않는 착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원작을 재구성한 작품 (가)에서는 흥부가 도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놀부에게 불만을 갖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 03 (나)는 (가)의 원작인 고전 소설로, 판소리 사설이 소설화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가)는 (나)를 바탕으로 현대에 재구성된 동화이다.
- 04 흥부는 (가)에서는 무능력하고 전근대적인 인간형으로 그려지지만, (나)에서는 도덕적인 인물, 약자, 피지배층을 대변한다. 놀부는 (가)에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대변하지만, (나)에서는 악하고 탐욕적인 인물로 지배층을 대변한다.
- 05 (가)에서 놀부는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스스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쳐 주기 위해 그를 내쫓은 것이고, (나)에서 놀부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흥부를 내쫓은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 드러난 놀부의 의도 차이를 형식에 맞게 썼을 때	5
놀부의 의도 차이를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 06 (나)의 '생전 못 해 보던 일로 이렇듯 벌기는 버는데'를 통해서 흥부는 품을 파는 일을 생전 해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07 (나)와 달리 (가)에서는 놀부가 여러 번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도와주지 않는다며 놀부를 원망하는 흥부의 모습에서 미안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08 [A]는 판소리계 소설로 반복된 말을 사용해 운율이 느껴지고, (다)는 노래 가사로 반복된 표현에서 운율이 느껴진다.
- 09 갈래가 바뀌면서 표현과 형식에 변화가 생겼으나 순수한 사랑과 향토적 소재는 그대로 살려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다)에서도 변함없이 느껴진다.
- 10 흥부는 자신이 놀부보다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놀부네 곳간 문을 열어 본 것이지, 놀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다.
- 11 ㄷ은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고, ㄹ은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12 [A]에서 작가는 흥부를 배려해 뒤에서 몰래 도왔던 놀부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려 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놀부의 행동을 중심으로 썼을 때	5
놀부의 행동을 중심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13 ㉠에서 흥부는 자신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놀부가 일부러 바가지 장수를 보내 바가지를 산 것임을 알게 된다.
- 14 (나)에서 흥부는 한결같이 착한 모습으로 그려지나, (가)에서는 형에게 의존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다 박을 팔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적극적 모습으로 변화한다.
- 15 재구성된 작품과 원작은 각각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관 지어 감상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6 (가)의 작가는 (나)를 (가)와 같이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성공의 가치와 스스로 노력하여 개척해 나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 주고 싶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에서 흥부의 모습을 통해 강조하는 삶의 가치를 형식에 맞게 썼을 때	5
삶의 가치를 (가)와 (나) 중에서 하나만 썼거나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 17 (나)와 같은 고전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에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창작되는 것이다.
- 18 ㉠의 '이성'은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여길 벗어나라고.'와 같이 자신이 월리를 흠뻑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월리를 카멜라 아줌마의 집에 돌려놓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19 (다)에서 월리를 흠뻑한 일을 고백할 것인가를 두고 조지나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 20 조지나는 꺼내기 힘들지만 자신이 율리를 흠뻑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려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큰 목소리가 튀어나온 것이다.
- 21 (라)에서 카멜라 아줌마는 율리가 돌아온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릴 만큼 행복해하고 있으며, (마)에서는 조지나의 고백을 듣고 놀란 카멜라 아줌마가 충격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거칠게 쉬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카멜라 아줌마의 심리 변화와 그 이유를 형식에 맞게 썼을 때	5
심리 변화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 22 (마)에서는 조지나의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충격을 받은 카멜라 아줌마의 모습이 나타난다.
- 23 영상으로 재구성할 때는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은 상세한 서술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등 시각적인 표현으로 전달해야 한다.
- 24 조지나는 자신이 한 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는 아줌마의 말을 듣고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 25 조지나를 용서하는 카멜라 아줌마의 말에 조지나는 자신을 짓누르던 괴로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난다. ㉠은 카멜라 아줌마와 조지나의 외적 갈등 및 조지나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 26 아줌마는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조지나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것이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 27 (나)는 영상 대본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누어 화면의 모습을 간략하게 그리고 대사와 자막, 배경 음악, 효과음, 소품 등 장면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단계이다.
- 28 조지나가 책을 찾는 장면이 영상에 잘 드러나려면 카멜라가 책꽂이 안에서 조지나의 얼굴을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 29 영상 제작 계획서 쓰기는 소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작품의 제목과 형식, 상영 시간, 재구성 의도, 주요 내용 등을 모둠원과 협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적인 재구성 방향을 잡는 단계이다.

채점 기준	배점
조지나의 심정을 바탕으로 ㉠을 썼을 때	5
조지나의 심정을 바탕으로 ㉠을 쓰지 않았을 때	2

## 2 / 효과적인 의사소통

###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36~37

- 핵심개념 1** 발화, 문장, 발화, 글  
**핵심개념 2** 듣는 이, 내용, 맥락, 내용  
**핵심개념 3** 음성, 문자  
**핵심개념 4** 문어, 글쓴이, 자원봉사자, 맥락, 시간  
**핵심개념 5** 음성, 말하는 이, 날짜, 맥락, 공간  
**핵심개념 6** 직접적, 상황, 도움, 의도 / 간접적, 문화, 세대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38~41

- 01 ③ 02 ⑤ 03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예약하였다.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⑤ 09 책을 옮기는 일을 도와줄 수 있어? 10 ⑤ 11 ① 12 ㄱ, ㄴ 13 ④ 14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15 ③ 16 ③ 17 뚱뚱하게 보인다. 18 ③ 19 ④ 20 ② 21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01 (나)는 음성 언어를 전달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 구어 담화이며, 방과 후에 도서관에 찾아가던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가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소통하고 있다.
- 02 (가)는 달빛 도서관 담당자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의 장소에 붙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봉사자 모집 안내문이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다.
- 03 (나)의 담화에서는 지훈이가 도서관 담당자와 대화를 하며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다. 대화 끝에 다음 주 토요일, 9시에 1층 열람실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
- 04 (나)에서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는 말하는 이의 역할과 듣는 이의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 05 담화는 말하는 시간과 공간과 같은 배경이나 환경 등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 06 발화는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발화가 모여서 하나의 담화를 이루게 된다.
- 07 이 담화에서는 ‘어디가 불편하세요(아프세요)?’라고 묻는 의사의 의도를 환자가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의자가 너무 딱딱하다고 엉뚱하게 대답하여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08 이 담화에서는 학교에서 친구 관계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화를 주고 받고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며 담화에 참여하는 두 사람은 담화의 의미에 대해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 09 남학생은 도서관으로 옮겨야 하는 책이 많아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로 시간이 있는지 묻고 있다.
- 10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한다.
- 11 (가)와 (나)에서는 모두 '괜찮아.'라는 담화를 사용하였으나, (가)에서는 머리 모양에 대한 의견으로 '좋아. 잘 어울려.'라는 의미이며, (나)에서는 '아니, 부족하지 않아.'라는 의미이다. (가)와 (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담화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다.
- 12 상황 맥락은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상황이나 주제, 의도와 목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ㄷ의 경우는, 문화의 차이가 담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한다.
- 13 <보기>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14 '괜찮아.'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내가 넘어진 것을 보고 친구가 걱정할 때의 '괜찮아.'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15 이 담화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자신을 포함한 타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는 외국인과의 의미 차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16 담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맥락이라고 하며,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다. 말하는 이의 개성은 담화의 맥락을 고려한 대화의 평가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17 할머니는 '모난 데가 없이 복이 있어 보여 보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복스럽게도 생겼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민지가 싫은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할머니의 말을 '(얼굴이나 몸매가) 통통하거나 뚱뚱해 보인다.'라고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 18 같은 발화라도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도서관 열람실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독서하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이다.

- 19 이 담화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가)에서 대화에 참여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주장만 말할 뿐,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20 (나)에서 '나'는 위층 사람이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는 처지라는 것을 알고, 위층의 소음에 대해 무조건 비난하고 항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21 이 글에는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들이 서로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대화하여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들이 맥락을 고려하여 말했다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2) 의미를 나누는 대화



###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42~43

- 핵심개념 1** 협력적, 변화  
**핵심개념 2** 고개, 한뫼, 암탈, 도시  
**핵심개념 3** 가치, 도시, 웃음거리  
**핵심개념 4** 도시, 문명, 분수 / 두메, 자연, 밤하늘  
**핵심개념 5** 도시 / 가치  
**핵심개념 6** 일치 / 공유, 달걀  
**핵심개념 7** 구체적 / 적극적

###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44~48

- 01 ③ 02 ⑤ 03 ③ 04 울고 싶은 감정을 느꼈다.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달걀을 달걀로 깎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10 한뫼는 자신이 도시 사람들에게 느꼈던 업신여김을 문 선생님이 동생(봄뫼)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1 ① 12 ⑤ 13 ⑤  
 14 ② 15 ④ 16 한뫼는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서 두메보다 우수하다고 여기고 있다. 17 선녀 폭포가 몇천 년을 한결같이 마르지 않고 매일 다른 모습으로 흐르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8 ② 19 ③ 20 ①  
 21 ③ 22 한뫼가 문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서로 달랐던 둘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었다.

- 01 한뫼는 달걀을 팔아 여행비를 마련하여 도시로 수학 여행을 다녀왔지만 동생 봄뫼의 도시 여행을 막고자 봄뫼가 기르는 암탉을 죽이려 한다. 봄뫼는 이 일을 문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한뫼에게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 02 ㉠에서 문 선생님은 봄피의 암탉을 죽이고 싶다는 한피의 생각을 꾸짖지 않고, 왜 그러고 싶은지를 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 03 문 선생님은 도시에서 한피가 겪었던 사건을 듣고 나서 자신이 한피의 마음을 몰라주었음을 깨닫고 미안했을 것이다.
- 04 (라)에서 한피는 한자리에서 달걀을 백서른 개나 먹는 아저씨를 보며 민박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했지만 자신은 울고 싶었다고 하였다.
- 05 한피는 자신이 도시 여행을 가서 도시 사람들에게 느꼈던 열등감을 동생이 똑같이 느끼게 될 것이 두려워 봄피가 키우는 암탉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 06 문 선생님은 한피가 암탉을 죽이려고 한 이유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내어 한피의 마음을 달래 주려는 것이다.
- 07 한피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해 온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도시 사람들을 보자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 08 ㉠은 문 선생님이 협력적인 듣기 태도로 한피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9 한피가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라고 물었고 문 선생님은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자고 하였으므로 ㉡의 뒤에 이어질 대화는 달걀을 달걀로 값는 방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10 한피는 봄피를 도시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문 선생님이 다시 여비를 마련하자고 하자 봄피가 도시 여행을 가게 되면 자신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업신여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11 이 글에서 한피와 문 선생님은 한 공간(고개)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12 문 선생님은 한피의 생각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떠올리고 한피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를 향해 미소를 띠며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은 도시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 소중한 가치 있는 달걀을 의미한다.
- 14 이 글에서는 한피와 선생님의 대화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며 두 인물은 대화를 통해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다.
- 15 도시에 있는 천체 과학관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의 별 자리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둘은 대조적 소재라고 볼 수 없다.
- 16 한피는 문명이 있는 도시가 두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17 문 선생님은 물이 마르면 쫄샤나운 도시의 인공 분수에 비해 자연 속에서 마르지 않고 한결같이 흐르는 두메의 선녀 폭포를 도시 아이들이 보게 되면 더 큰 감동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8 이 글에서 문 선생님은 한피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일단 수용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한피를 차분하게 설득하고 있다.
- 19 문 선생님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편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두메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시는 도시대로 두메는 두메대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20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대하여 자연의 가치를 깨닫도록 함으로써 한피와 같은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한피는 선생님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선생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 21 대화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므로 서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며 들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22 ㉠은 그동안 문 선생님과 생각이 달랐던 한피가 두메의 가치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꾸어 그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01 ④ 02 ② 03 ④ 04 방과 후에 달빛 도서관에서 지훈이가 도서관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 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다. 05 ② 06 ①, ⑤ 07 ③ 08 슬리퍼 09 층간 소음을 줄여 주세요. 10 ③ 11 ④ 12 ③ 13 ② 14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5 ②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④ 21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2 ③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⑤ 28 ④ 29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30 ④ 31 ③ 32 ③ 33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 01 (나)와 같은 담화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뒤바뀐다.
- 02 (가)에서는 안내문을 통해 달빛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중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03**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는 지훈이의 자원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으며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04** <보기>에 따르면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전하는 내용, 맥락’이 있다. (나)의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지훈이와 달빛 도서관 담당자이고, 대화의 주된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 날짜와 시간을 정함으로써 봉사 활동을 예약하는 것이고, 맥락에서 시간은 방과 후, 공간은 달빛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담화의 구성 요소(말하는 이, 듣는 이, 전하는 내용, 맥락)를 모두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썼을 때	3
한 문장으로 썼지만 담화의 구성 요소(말하는 이, 듣는 이, 전하는 내용, 맥락)를 모두 포함하지 않았을 때	1

**05** (가)와 (나)는 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따라서 이웃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②가 적절하다.

**06** (가)에서는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들이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각자 자신의 입장만 주장할 뿐, 서로의 처지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여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가)에서는 두 대화 참여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비대면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여 서로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위층 사람이 휠체어를 탄 모습을 확인한 ‘나’가 이를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08** (나)에서 ‘나’는 위층 사람에게 슬리퍼를 선물하면서 자신이 선정한 슬리퍼를 신고 소음을 줄여 주기 바라는 의도를 내비치려고 했다. 그러나 위층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슬리퍼가 필요 없는 상황임을 알고는 무관심했던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09** ㉠은 공동 주택에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점을 들어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문맥에 맞는 형식으로 대화체의 한 문장으로 썼을 때	3
대화체의 한 문장으로 썼으나 문맥에 맞지 않았을 때	1

**10** 위층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처지로,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면서 자신도 아래층 사람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과 같이 표현한 것이다.

**11**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상황 맥락’에 해

당한다.

**12** ③의 ‘괜찮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우리’라는 말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인 로버트와 이야기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4** <보기>의 상황에서는 ‘복스럽다’라는 말을 할머니와 손녀가 각각 다른 의미로 생각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화 태도를 바르게 썼을 때	3
대화 태도는 썼지만 <보기>의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때	1

**15** 민우와 엄마는 저녁 식사 시간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우가 쓰는 신조어(‘생파’, ‘생선’)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로,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6**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7** (가)~(마)의 담화는 한피와 선생님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자리에서 나눈 담화이다. 문 선생님은 한피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협력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고 있으며, 한피 또한 그런 문 선생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담화의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18** (가)와 (나)의 대화에서 한피가 달걀을 팔아서 그 돈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하여 도시 여행을 갔고, 그 일에 열심히 참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한피는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한 여겼던 달걀이 도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분함을 느끼고 도시 사람들에게 양갈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중학교에 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피는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아이임을 알 수 있다.

**20** ㉠은 ‘~(도시에)가 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라고 말한 한피에게 선생님이 그 구체적인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한피는 이 질문에 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나가고 있다.

**21** 한피는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몹시 귀하게 여겨온 달걀을, 도시 사람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분함과 굴욕감, 자괴감을 느꼈다.

채점 기준	배점
한피의 심리와 그렇게 느낀 까닭을 적절하게 썼을 때	4
한피의 심리는 언급했지만 그렇게 느낀 까닭을 쓰지 않았을 때	2

- 22 한피는 선생님이 봄피가 암탉을 기르는 일을 도와주라고 하자, 달걀을 판 돈으로 봄피가 도시 여행을 하며 자신과 똑같이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우려하고 있으므로 봄피의 도시 여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23 이 글에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도시’와 ‘두메’의 가치에 대해 말하는 문 선생님과 한피의 담화가 담겨 있다.
- 24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자는 선생님의 말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피에게,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베풀어 주자고 말하고 있다.
- 25 한피와 선생님은 도시와 두메의 대조적인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뒤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26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이 문명과 함께 자라나면서 자연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두메 아이들에 비해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자연 속에서의 삶과 문명 속에서의 삶 모두 가치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경험할 기회를 주자고 한피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 27 이 글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달랐던 한피와 문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설득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⑤의 명언이 문 선생님의 행동에 가장 어울린다.
- 28 ㉠(분수)은 도시의 공원에 있는 인공적인 분수로, 처음 볼 때에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며칠이면 질릴 수 있는 것이며, 물이 마르기도 하는 곳이다. 이에 비해 ㉡(폭포)은 자연적인 것으로 몇천 년을 한결 같이 흐르면서도 매일 다르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다.
- 29 이 글에는 처음에는 달랐던 한피와 문 선생님의 생각이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일치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사람의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 ‘의미’라는 말을 포함하여 대화의 의미를 바르게 썼을 때	3
대화의 의미는 썼지만 ‘협력’, ‘의미’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못했을 때	1

- 30 (가)에서는 비대면 대화로 인해 위층 사람의 처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에서는 ‘나’가 위층에 직접 찾아가면서 드러나고 있다.

- 31 일반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과 같은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32 ㉡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위층 사람이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던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던 자신의 태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 33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문 선생님은 한피가 좋아하는 통닭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56~62

01 ③ 02 ④ 03 ㉠: 좋아. 잘 어울려. ㉡: 아니, 부족하지 않아. 04 ④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③ 10 내가 도와 줄게. / 내가 같이 책을 옮겨 줄게. 11 ⑤ 12 ③ 13 •기본적 의미: 나는 사람이다. •변화된 의미: 나는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기 힘들다. 14 ① 15 ① 16 ② 17 ① 18 ② 19 문 선생님은 달걀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도시 여행의 경비를 마련하도록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 준 것이다. 20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21 ⑤ 22 ① 23 ① 24 ② 25 ④ 26 ④ 27 ③ 28 ① 29 서로의 처지를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였기 때문이다. 30 ① 31 ⑤ 32 ① 33 ④

- 01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난 것은 ‘발화’라고 한다. ‘담화’는 이러한 발화가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이나 글을 통해 표현된 하나 이상의 발화로 구성되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 02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 전하는 내용, 맥락이 있다. 맥락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처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포함한다.
- 03 같은 담화라도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은 달라진 머리 모양에 대해 ‘잘 어

올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담화이며, ㉠은 음식을 충분히 먹어 '부족하지 않아.'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담화이다.

- 04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주고받는 과정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 05 이 대화에서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는 도서관 봉사 활동이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있다.
- 06 지훈이와 도서관 담당자는 지훈이가 참여할 도서관 봉사 활동의 날짜가 언제인지,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07 '어디가 불편하세요?'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을 때 쓰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는 '몸이 어떻게 아픈가?'를 물을 때 쓴다. <보기>에서 의사는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해 ㉡와 같이 묻고 있는데, 환자는 ㉢와 같이 현재 불편한 점(의자가 너무 딱딱하다.)을 말하고 있어 두 사람은 담화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 08 같은 발화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 ㉣, ㉤는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라는 ㉢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 어울린다.
- 09 ㉢의 담화에서는 현수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외국인 친구인 존은 그 의미를 '현수와 자신'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으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만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 10 남학생의 '너, 시간 있어?'라는 말은 '시간이 있으면 함께 책을 옮겨 달라.'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므로 이에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대화체의 한 문장으로 알맞게 썼을 때	3
대답을 썼지만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쓰지 않았거나 대화체로 쓰지 않았을 때	1

- 11 (가)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맥락(휠체어를 타야 하는 위층 사람의 처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대화하기 때문에 아래층 사람이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

- 12 (가)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비협력적인 태도로 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의 처지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적절하다.

- 13 ㉡는 위층 사람이 자신이 아래층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기본적 의미와 변화된 의미를 각각 한 문장으로 알맞게 썼을 때	4
기본적 의미와 변화된 의미 가운데 한 가지만 알맞게 썼을 때	2

- 14 '우두망찰'은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의미하므로 '뜻밖의 일로 당황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여 정신이 매우 얼떨떨하다.'라는 뜻의 ㉠ '얼떨떨했다'가 적절하다.
- 15 이 글에서 두 사람은 위층과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16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한피와 선생님 사이의 대화를 전달하며 봄피가 암탉을 키우는 일과 과거 한피가 했던 도시 여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17 두 사람의 담화가 진행되는 시간적 배경은 일요일이 아니다. 문 선생님은 방과 후에 고개에서 한피를 만나 이번 일요일에 통닭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 18 문 선생님은 한피가 봄피의 암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배려하는 태도로 한피의 말을 경청하면서 질문을 하고 한피의 생각을 들어 보고 있지만, 한피에게서 공감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 19 문 선생님이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 주는 것은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비를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제시된 세 단어(달걀, 도시 여행,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썼을 때	3
㉠의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제시된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 20 ㉠은 문 선생님이 한피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부분으로, 질문의 형식을 빌려 한피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털어놓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듣는 이의 질문은 말하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경청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같이 말한 효과 두 가지를 각각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과 같이 말한 효과를 한 가지만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 21 한피와 문 선생님은 도시와 두메에 관해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선생님은 도시가 더 우수하다고 여기는 한피에게 두메와 도시가 각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설득하며 의미를 공유하려고 한다.
- 22 한피는 문명이 있는 도시가 두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23 협력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피는 문 선생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문 선생님의 말에 공감하게 되고,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다.
- 24 문 선생님은 달걀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두메로 초청하고 두메의 자연을 느끼도록 하여 시골에서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 25 한피는 도시 아이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런 한피의 생각을 바탕으로 적절한 준언어적(말투), 비언어적(표정, 몸짓, 태도) 표현을 사용하여 말해야 한다.
- 26 ㉠은 한피가 선생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선생님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음을 표현한 부분이다.
- 27 문 선생님은 도시는 도시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두메에서의 삶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 '십인십색(十人十色)'은 '열 사람의 열 가지 색'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모습이나 생각이 저마다 다름.'을 이르는 말이므로 어떤 대상이든 제각기 다른 모습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적합하다. ①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② 동가홍상(同價紅裳):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을 가짐'을 이르는 말, ④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⑤ 이구동성(異口同聲):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이다.
- 28 (가)와 (나)는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각각의 대화 주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위층 사람과 아래층 사람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에서는 달걀을 팔아서 도시 여행의 경비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문 선생님과 한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29 (가)에서 두 인물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대화 태도는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오해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 30 (나)에서 문 선생님은 한피가 자신의 말을 잘못을 이해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며 한피를 설득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31 [A]는 위층 사람이 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래층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꾸면, 상대방의 처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한 ㉤가 적절하다.
- 32 ㉠, ㉡의 달걀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의미로 쓰였다. ㉠은 '도시에서 한피가 느낀 열등감'을, ㉡은 '시골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뿌듯함'을 의미한다.
- 33 한피는 봄피를 도시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 이유까지 설명했는데도, 문 선생님이 암탉을 길러 여비를 마련하자고 하자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을 무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3 / 알기 쉽게 설명하기

## (1)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4~65

- 핵심개념 1 뜻, 속성 / 공감각, 뜻
- 핵심개념 2 구체적, 예 / 이해
- 핵심개념 3 요소 / 요소
- 핵심개념 4 공통점, 차이점
- 핵심개념 5 기준 / 크기, 용도
- 핵심개념 6 원인 / 결과
- 핵심개념 7 격언 / 신뢰도
- 핵심개념 8 종소리, 분수 / 감각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66~69

01 ④ 02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인 '정의'가 사용되었다. '공감각'의 뜻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그 의미를 명확히 알게 되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7 설명 대상인 '아' 자를 분석의 방법을 통해 '오'와 '나'로 설명함으로써,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8 인용 09 ④ 10 ⑤ 11 인과 12 ⑤ 13 ① 14 ㉠ 15 ④ 16 ③ 17 '예시'의 설명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예로 보여 주어 백색 소음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18 ①, ③ 19 생활 주변의 자연 소리와 비슷해서

- 01 이 글은 독자에게 '공감각'이란 무엇인가를 알려 주기 위해 쓴 설명문으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지 않았다.
- 02 (가)에서는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 03 (나)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경>을 예로 든 것은 '공감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 04 [A]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이다. ①은 '정의', ②는 '분류·구분', ③은 '비교', ④는 '인용'의 특징이다.
- 05 (라)에서 작가는 단순히 문자의 조형성만을 빌려 온 그림과는 달리 조형성,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한 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다.
- 06 사람들이 감탄할 때 '아'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 07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그림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08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 또는 격언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와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설명 방법을 쓰면 글의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09 (마)에서 공감각을 되살리기 위한 비결로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을 통해 '공감각'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기 어렵다.
- 10 (가)~(다)는 모두 설명문으로, (가)는 '인과', (나)는 '대조', (다)는 '정의, 분류, 예시' 등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11 (가)에서는 대륙봉 지형이 황금 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12 (나)는 우리나라의 종과 서양의 종을 견주어 차이점을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소재는 서양과 동양의 건축 양식을 견주어 설명할 수 있는 ⑤이다.
- 13 (다)에서 '소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소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4 <보기>는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이 '분류'를 설명 방법으로 활용한 것은 소음을 '컬러 소음'과 '백색 소음'으로 나누어 설명한 ㉠이다.
- 15 이 글은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백색 소음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 16 (가)에서는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 실험을 한 결과 백색 소음이 업무의 효율성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백색 소음이 학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③이다.
- 17 (나)에서는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의 뇌파 반응 검사의 결과를 예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8 (다)를 보면 엄마의 목소리와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는 백색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리를 우는 아기에게 들려주었을 때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애타게 운 것이다. 반면 백색 소음인 텔레비전에서 나는 소리나 진공청소기 소리, 비닐 봉지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아기는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였다.
- 19 (라)에서 '이렇듯 백색 소음은 생활 주변의 자연 소리와 비슷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다.

## (2) 설명하는 글 쓰기

###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70-71

- 핵심개념 1 목적, 까닭, 설명, 친구
- 핵심개념 2 생각, 주제
- 핵심개념 3 삭제, 추가, 방법
- 핵심개념 4 개요, 흥미, 분석, 사람
- 핵심개념 5 주제, 비판, 수정, 목적, 점검
- 핵심개념 6 주제, 제목, 문단, 문법적, 단어, 문맥, 맞춤법
- 핵심개념 7 구조, 이해, 객관적

###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72-75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② 06 ⑤ 07 ㉠,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08 ③ 09 ① 10 ④ 11 ⑤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① 17 '예리'를 '예민'으로 바꾸어야 한다.

- 01 설명문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보다 문장 표현에 초점을 둔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 02 ㉠에 들어갈 내용은 '표현하기'이다. '표현하기' 과정에서는 개요를 바탕으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써야 한다. ①과 ②는 '내용 선정하기', ③과 ⑤는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 03 (가)는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인 '계획하기'로,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해야 한다.
- 04 (가)의 '그래,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라는 현재의 생각에서 글을 쓰는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 05 (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글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는 '내용 선정하기' 과정이다.
- 06 설명하는 글에 쓸 내용을 선정할 때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내용만 선택해야 한다.
- 07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60배 이상 발달해 있다는 ㉠의 내용은 현태가 쓰고자 하는 주제인 사람의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나, 사람의 코와 콧구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른 자료들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글을 쓸 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08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요를 작성한 후에도 다시 점검하여 내용을 고쳐 쓸 수 있다.
- 09 코의 구조는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므로 글의 중간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 10 (가)는 설명하는 글로, 이와 같은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 대상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 11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밖에서 들어온 공기를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코 선반의 기능으로, 코 선반은 코의 안쪽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 12 고쳐쓰기 활동은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으로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쳐쓰기는 글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수정하는 것이다.
- 13 (나)의 ㉡에서 내용을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4 [A]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 15 <보기>의 문장은 코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코 선반에 대한 설명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코 선반에 대한 설명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 16 ㉠에는 뒤 문단의 내용을 안내할 수 있는 '먼저 코의 구조를 살펴보자.'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 17 문맥상으로 볼 때 '관찰이나 판단이 정확하고 날카로움.'이라는 뜻의 '예리'가 아닌 '무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이라는 뜻인 '예민'이 어울린다.

### 대단원 최종실전 회

pp. 76-81

01 ⑤ 02 ③ 03 ㉠과 ㉡은 모두 공감각이 잘 드러난 예술 작품이다. 04 ④ 05 ② 06 ⑤ 07 ① 08 ㉠, (다)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 역시 설명 대상인 곤충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09 ④ 10 ③, ④ 11 ⑤ 12 ⑤ 13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 주므로 좋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14 예시, 백색 소음이 어떤 소리인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15 ① 16 ③ 17 ① 18 구체적인 실험을 예로 보여 주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백색 소음의 효과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 방법이다. 19 ⑤ 20 (다)는 <보기>의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백색 소음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 ③ 22 ② 23 ② 24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25 ④ 26 ⑤ 27 ④ 28 '분석'을 활용하여 코의 구조를 바깥 코와 코안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 01 이 글에서는 설명하는 대상의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을 나누어 서술하지 않았다.
- 02 (가)~(다)에서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 03 ㉠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와 색채로 표현하였고, ㉡은 귀로 듣는 '퐁땡'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공감각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04 공감각이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표현을 말한다. 단순히 두 개 이상의 감각을 표현했다고 해서 공감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 05 작가가 '아'라는 글자를 선택한 이유는 (나)에 제시되어 있는데, '아'가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06 (라)에서는 <아>의 작가인 김호득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는 그 이유를 한글을 통해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 모두 그림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07 (다)에서 'ㅇ'과 'ㅏ'가 표현하는 바를 알 수 있다. 'ㅇ'은 '아'를 받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을 표현한 것이고, 'ㅏ'는 '아!'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담은 것이다.
- 08 (다)는 설명 대상인 '아'를 세부적인 구성 요소인 'ㅇ'과 'ㅏ'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기>에서 ㉣는 '분석', ㉤는 '분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성질로 나누는 것이고, '분류'는 대상을 공통되는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다)의 설명 방법(분석)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을 바르게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타당하게 제시했을 때	5
(다)의 설명 방법(분석)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을 바르게 찾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을 때	2

- 09 (마)에서는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이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 10 (가)~(마)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을 쓸 때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대상을 설명해야 한다.
- 11 (마)에서는 '남의 말이나 글 또는 고사, 격언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끌어와서 설명하는 방법인 '인용'을 사용하지 않았다.
- 12 (라)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음 중에도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 13 ㉠의 답에 해당하는 문장을 (마)에서 찾으면, '백색

소음은 집중도를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켜 업무 흐름을 높여 준다.'이다.

- 14 (라)에서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을 예로 들어 백색 소음이 어떤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5 (나)에서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를 측정했을 때 베타파가 줄어들면서 집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가 증가했다고 하였다.
- 16 이 글을 살펴보면, 백색 소음에 대한 '실험 결과'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지 않았다.
- 17 ㉠의 앞부분에서 백색 소음을 꺾을 때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했으므로 ㉠에는 백색 소음이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는 결론이 들어가지 않는다.
- 18 (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예시'이다.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의 뇌파 반응 검사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19 이 글에서는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뇌파 반응 검사를 했을 때, 베타파가 줄어들고 알파파가 늘어나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 자료를 보조 자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0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설명하면 독자들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다)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설명 방법과 효과를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썼을 때	5
(다)에서 활용한 설명 방법과 효과 중에 하나만 제시하거나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21 (가)는 글을 쓰기 전에 계획하는 단계로, 글에서 설명할 대상과 글의 주제,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정하는 단계이다.
- 22 (가)로 볼 때 현재는 '사람의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주제로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의 후각에 대해 다룬 책의 내용(㉢)은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 23 (나)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 조사하기, 생각 그물 그리기, 브레인스토밍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글에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 24 ㉠은 사람과 동물의 코를 비교·대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제인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수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썼을 때	5
수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중 하나만 제시했거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 25 (가)~(마)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에서는 설명할 대상마다 그 특성이 다르므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26 <보기>의 설명 방법은 '분류'로, (마)에서는 소음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27 (가)~(마)의 글은 모두 설명문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 여부는 주장하는 글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28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A]에서는 분석을 활용하여 코의 구조를 설명했다.

채점 기준	배점
[A]의 설명 방법의 명칭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에 알맞게 썼을 때	5
설명 방법의 명칭이나 설명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01 ② 02 ① 03 ④ 04 '퐁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05 ③ 06 ① 07 자음 'ㅇ'을 통해 '아'를 발음할 때 성대의 떨림을 표현하였다. 모음 'ㅏ'를 통해 '아!' 소리를 낼 때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08 붓질을 통해 공감각을 표현하였다. 09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서 10 ① 11 (가)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륙붕 지형이 황금 여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12 ③ 13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14 ④ 15 ④ 16 ④ 17 ② 18 글쓴이는 앞으로 백색 소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백색 소음이 인간에게 두루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19 ⑤ 20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 21 내용을 선정할 때는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22 ② 23 ③ 24 ① 25 ② 26 ③ 27 ④ 28 ④ 29 뒤에 이어질 문단의 내용을 안내하는 문장을 넣어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30 ⑤ 31 ② 32 ② 33 ①

01 이 글의 글쓴이는 김광균의 시 <외인촌>이나 데이비드 호크니의 <퐁덩>을 통해 공감각이 무엇인지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공감각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02 ①은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의란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이다. ②는 예시, ③은 인과, ④는 분석, ⑤는 비교에 대한 설명이다.
- 03 [A]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④가 '분석'에 해당한다. ①은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비교', ②, ③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 ⑤는 대상과 연관된 구체적 예를 제시하는 '예시'이다.
- 04 (다)에서 작가는 '퐁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집중'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의 답을 알맞게 썼을 때	3
㉠의 답을 제시했으나 '집중'이라는 말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1

- 05 (나)에서 작가 김호득은 두 글자는 단어의 의미가 먼 저 떠올라 상상력이 갇히게 되어 한 글자인 '아'를 골랐다고 하였다.
- 06 (다)에서는 '아'를 'ㅇ' 부분과 'ㅏ'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라)는 작가 김호득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 07 (다)에서 'ㅇ'은 먹물의 질거나 얇은 부분을 통해 성대의 떨림을 표현한 것이고, 'ㅏ'는 단숨에 선을 그어 '아!' 소리를 낼 때 강렬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자음 'ㅇ'과 모음 'ㅏ'에 담긴 의미를 각각 밝혀 두 문장으로 썼을 때	3
자음 'ㅇ' 또는 모음 'ㅏ'에 담긴 의미 중 한 가지만 서술했거나 두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 08 <보기>는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를 통해 '퐁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여 공감각을 표현하였다. (다)는 붓의 떨림과 속도를 활용하여 성대의 떨림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둘 다 붓질을 활용하여 공감각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9 <보기>에서 빈칸의 앞에서는 "공감각"이라는 건 ~ 되살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라고 하였는데, 뒤에서는 "~공감각적 능력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라고 했으므로 빈칸에는 (마)에 제시된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가)~(마)는 모두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11 (가)는 독도 주변에 황금 어장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한 글로,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륙붕 지형으로 인해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고, 물고기 산란에도 유리하여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를 설명했을 때	3
설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효과를 설명할 때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

12 ㉔은 '분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㉕은 '정의', ㉖과 ㉗은 '예시'를 활용하였다.

13 설명문에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설명하는 대상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독자가 대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채점 기준	배점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을 '대상', '특징', '독자', '이해'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적절하게 썼을 때	3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을 제시했으나 '대상', '특징', '독자', '이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1

14 (나)의 실험 결과를 통해 백색 소음이 심리적 안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다)에서 우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아기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엄마 품을 찾아 더 애타게 울었다고 했으므로 ㉔은 백색 소음을 제대로 활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㉕, ㉖, ㉗은 백색 소음을 적절하게 활용한 경우이다.

16 (가)~(라)에서 백색 소음과 일반 소음의 데시벨 차이를 대조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㉔의 자료는 내용 생성 과정에서 수집했을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17 <보기>에서는 증강 현실이 적용된 예를 들고 있으며, (가)~(다)에서도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백색 소음의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18 (라)에서 글쓴이는 백색 소음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앞으로 백색 소음이 두루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19 (가)는 글을 쓰기 전 계획하기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 글의 주제 등을 결정한다. 구성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내용 구성하기의 과정에서 할 일이다.

20 현재는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21 '내용 선정하기' 과정에서 내용을 판단할 때는 주제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을 쓸 때 고려할 사항을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이 드러나게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내용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22 ㉔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라는 이 글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자료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23 (나)의 과정을 거쳐 쓰고자 하는 글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허구적 이야기인 소설은 더 찾아볼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24 글의 처음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끈다고 했으므로 ㉔을 활용하여야 한다.

25 중간 부분의 ㉔과 ㉗은 '콧구멍이 두 개인 까닭'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이 글은 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문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은 수필의 특징이다.

27 (다)에서 사람은 두 개의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숨을 쉰다고 하였다. 따라서 숨을 쉴 때 양쪽 콧구멍을 동시에 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㉔은 코의 구조를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하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㉕은 개요를 볼 때 사람과 동물의 호흡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므로 비교·대조의 방법이 적절하다.

29 <보기>의 문장은 이어지는 문단의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안내하는 문장을 넣으면 문단 간 연결이 자연스럽다.

30 ㉔은 청각(종소리)을 시각(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으로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이다. ㉕은 청각(울음)을 시각(금빛)으로 나타낸 공감각적 심상이다. ㉖은 미각적 심상, ㉗은 시각적 심상, ㉘은 청각적 심상, ㉙은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31 (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분석'이란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하는 ㉔가 가장 적절하다.

32 (다)는 설명문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논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33 ㉔의 앞에서는 '콧구멍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하였고, ㉕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숨쉬기가 어려울 텐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되면(=콧구멍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이 적절하다.

# 4 / 올바른 국어 생활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90~91

- 핵심개념 1 생각, 의사소통
- 핵심개념 2 -ㄴ, ㄴ, ㄱ
- 핵심개념 3 ㄷ, ㅂ, 받
- 핵심개념 4 모음, ㅏ, 대표음
- 핵심개념 5 ㅃ, ㄱ, ㅁ, ㅂ, ㄷ
- 핵심개념 6 되고, 돼서, 돼
- 핵심개념 7 안, 않, 아니하
- 핵심개념 8 낳다, 부치다, 붙이다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92~93

- |             |      |      |      |      |      |      |
|-------------|------|------|------|------|------|------|
| 01 ①, ②     | 02 ② | 03 ⑤ | 04 ④ | 05 ③ | 06 ④ | 07 ③ |
| 08 [갑], [덕] | 09 ③ | 10 ④ | 11 ④ | 12 ③ | 13 ③ |      |
| 14 ⑤        | 15 ④ |      |      |      |      |      |

- 01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면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02 첫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의사]로 발음한다.
- 03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을 허용하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할머니의 흰머리’는 [할머니의 흰머리] 또는 [할머니에 흰머리]로 발음해야 하고, ‘무늬’는 [무니]로 발음해야 한다.
- 04 ‘스, 즈, 스, ㄷ’은 받침에서 [ㄷ]으로 발음되며, ‘쿠’은 받침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부엌’의 받침소리가 나머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05 ‘있(다)와 ‘밭’은 모두 받침소리가 [ㄷ]이므로 같은 소리로 발음된다고 할 수 있다.
- 06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읽 아래’는 [이 바래]로 발음해야 한다.
- 07 ‘꽤’은 받침에서 [ㅂ]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꽤’은 [리]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웁다’와 ‘여덟’의 받침소리는 서로 다르다.
- 08 ‘ㅃ’은 받침에서 [ㅂ]으로 발음해야 하고, ‘러’은 받침에서 [ㄱ]으로 발음해야 한다.

- 09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다만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와 ㉡는 제시된 발음이 맞으며, ㉢ ‘답이’는 [달기]로, ㉣ ‘앉아서’는 [안자서]로 발음해야 한다.
- 10 ‘되-’ 뒤에 ‘-어’가 붙었을 때만 줄여서 ‘돼’로 쓴다. 따라서 ㉣는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로 쓰야 한다.
- 11 ‘않-’은 ‘아니하-’를, ‘안’은 ‘아니’를 줄인 말이다. 따라서 ‘아니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않-’으로, ‘아니’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안’으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의 ‘않는다’가 알맞은 표기이다.
- 12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의 뜻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다리가 다 회복되지 않아 축구를 할 수 없는 용기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때에는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뜻을 가진 ‘낳다’를 써야 한다.
- 13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낸다.’라는 뜻의 단어는 ‘부치다’이다.
- 14 ‘맑아지겠지만’에서 ‘맑아’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말가]로 발음해야 하며, ‘젓’의 받침 ‘ㅃ’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말가지겟찌만]이 올바른 발음이다. 그밖에 지역어[지여계], 대설주의보[대설주의:보/대설주이:보], 안팎의[안과피/안과계], 앞으로[아프로]로 발음해야 한다.
- 15 ‘낙지볶음’은 올바른 표기이다.

## (2) 매체 바르게 읽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94~95

- 핵심개념 1 시각, 동영상
- 핵심개념 2 의도, 이해
- 핵심개념 3 내용, 의도
- 핵심개념 4 설명, 관심
- 핵심개념 5 상황, 강조, 시각화, 비교
- 핵심개념 6 반복, 간편, 강조
- 핵심개념 7 요약, 시각적

01 ⑤ 02 ②, ③ 03 ‘.....입니다.’를 생략하고 ‘결제 완료’나 ‘끝’과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04 ③ 05 단순한 이미지로 내용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내용의 핵심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06 ③ 07 ⑤ 08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선불 카드에 충전하는 제도 09 ③ 10 ① 11 ② 12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취약 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바일 페이로 큰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13 ③ 14 ③ 15 ①, ③

- 01 이 글에서는 모바일 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생활의 간편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없다.
- 02 진행자가 모바일 페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모바일 페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모바일 페이를 이미 쓰고 있는나는 질문을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03 뉴스는 일반적으로 ‘.....입니다.’와 같은 서술어로 문장이 끝나는데 이 뉴스는 ‘결제 완료’, ‘끝’과 같이 끝나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 04 (라)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페이를 쓰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 목표 시한을 2030년으로 정했다고 하였다.
- 05 시각 자료 중에서 ‘그림’은 뉴스의 내용을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 06 (나)와 (다)에서는 도표를 활용하여 수치를 시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상황의 변화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 07 사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현금 사용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현금의 사용처가 적은 것은 아니다.
- 08 (마)에서 한국은행은 다음 달부터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선불 카드에 충전하는 제도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 09 <보기>는 인터뷰 자료로, 이를 이용하면 보도 내용을 현장감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 10 (가)에서는 모바일 페이의 사용이 가져다 줄 긍정적 측면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제시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11 (가)의 인터뷰에서는 모바일 페이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 줌으로써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12 (가)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전에 노년층 등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였다.
- 13 (나)에서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 14 (나)의 제목에서는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라는 비슷한 구절을 서로 짝지어서 글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였다.
- 15 <보기>는 사람이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탄 사람은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이처럼 사진 등을 통해 실제 모습을 보여 주면 독자들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사실감을 높일 수 있다.

01 ④ 02 ② 0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 ]로 발음한다. 04 ④ 05 ④ 06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면 제 음기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07 ⑤ 08 겹받침 ‘ㅃ, ㄸ, ㅆ’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09 ⑤ 10 ㉓: 달마서, ㉔: 흘글 11 ⑤ 12 ③ 13 ② 14 ‘안’은 ‘아니’를 줄여서 쓴 말이고 ‘않’은 ‘아니하’를 줄여서 쓴 말이므로 ‘안 먹었어.’, ‘않을래?’라고 써야 한다. 15 ④ 16 ② 17 ② 18 ② 19 ⑤ 20 ④ 21 ③ 22 ② 23 ⑤ 24 ② 25 자료는 사람들이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여러 모습을 한 번에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26 ③ 27 ⑤ 28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9 ④ 30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다. 31 ②

- 01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 ]로 발음한다. 따라서 ‘히다’, ‘띠어쓰기’, ‘무니’, ‘희망’은 [히다], [띠어쓰기], [무니], [희망]으로 발음하지만 ‘의미’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아 [의미]로 발음해야 한다.
- 02 ‘유희[유히]’는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 ]로 발음한다.’에 해당한다.
- 03 <표준 발음법> 제5항에 의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 ]로 발음해야 한다.
- 04 ‘ㅍ’은 받침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읽’은 [읽]이 아닌 [입]으로 발음해야 한다.

05 ‘옷’은 받침소리가 [ㄷ]이고, ‘손’은 받침소리가 [ㄴ]이므로 받침소리가 다르다. ‘꽃, 밭, 낫, 빗’은 모두 받침소리가 [ㄷ]이고, ‘집, 짚’은 받침소리가 [ㅂ]이다. ‘밖, 부엌’은 받침소리가 [ㄱ]이다.

06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3항에 따라 흡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채점 기준	배점
‘조사’와 ‘음절’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의 발음을 썼을 때	4
‘조사’와 ‘음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였지만,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의 발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때	1

07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때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㉓는 [바틀]로 발음해야 하며,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㉔와 ㉕는 각각 [이뵈], [바다래]로 발음해야 한다.

08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겹받침 ‘래, 래, 띠’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09 ‘씩’은 어말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옳다’는 [옴따]로 발음해야 한다.

10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달마서], [홀글]로 발음해야 한다.

11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또한 그것이 ‘ㅅ’일 경우에는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한다.

12 ‘되-’가 ‘-어’와 만나는 경우 ‘돼’로 줄여 쓸 수 있으므로 ‘됐습니다.’, ‘되는’, ‘됐다’로 써야 한다.

13 <보기>의 예시는 모두 ‘되-’가 ‘-어’와 만나 ‘돼’로 줄여 쓴 경우이다.

14 ‘않 먹었어’는 ‘안 먹었어’가 맞는 표기이고, ‘안을래’는 ‘않을래’가 맞는 표기이다.

15 ‘안’은 ‘아니’를 줄여 쓴 말이고, ‘않-’은 ‘아니하-’를 줄여 쓴 말이므로 ㉔는 ‘이제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써야 한다.

16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의 단어는 ‘낳다’이고,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뜻의 단어는 ‘낫다’이다. ㉔는 약을

먹자 병이 고쳐졌다는 뜻이므로 ‘낫다’를 사용해 ‘나았다’라고 써야 한다.

17 ㉑은 ‘달렸다’, ㉓은 ‘걸음’, ㉔는 ‘다리지’ ㉕는 ‘걸히지’로 써야 한다.

18 ㉑, ㉓, ㉔, ㉕에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은 ‘붙이다’, ㉒에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은 ‘부치다’이다.

19 ‘ㅅ’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에는 대표음인 [ㄷ]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하므로 [말가지켄지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20 ‘육개장’이 올바른 표기이다.

21 ‘받아들이겠어’는 올바른 표기이다.

22 현금 없는 사회를 가정하여 모바일 페이의 편리함을 드러내기는 하였지만, 모바일 페이 사용을 직접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았다.

23 이 뉴스에서는 모바일 페이가 현금을 대체하여 현금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4 ‘……입니다’를 생략하고 ‘결제 완료’나 ‘끝’이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5 (다)의 화면 자료는 사람들이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다양한 모습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 주어,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화면 자료의 내용과 자료의 효과를 모두 설명했을 때	4
화면 자료의 내용은 설명했으나 그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지 못했을 때	1

26 (가)와 (라)에서는 스웨덴과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모바일 페이 사용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행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다.

27 <보기>는 2014년과 2015년의 지급 수단별 이용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띠그래프이다. 지급 수단별 이용 비중의 수치를 시각화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금 사용이 37.7%에서 36%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28 (라)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채점 기준	배점
자막의 역할과 효과를 모두 서술했을 때	3
자막의 역할과 효과 중 한 가지를 서술하지 못했을 때	1

29 (가)의 뉴스는 ‘현금 없는 사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점과 단점 및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화제에 대해 깊이 있

게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 30 (가)의 인터뷰에서는 모바일 페이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 주어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채점 기준	배점
전문가 인터뷰 자료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히 서술했을 때	3
인터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보편적인 효과만 서술했을 때	1

- 31 (나)는 자전거 교통 법규를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글로, 좋은 자전거의 조건을 나타낸 그림은 (나)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106~112

01 ① 02 '의사'에서 '니'는 이중 모음 [-i]로 발음해야 하고, '희망'에서 '니'는 [i]로 발음해야 한다. 03 ④ 04 가, 나, 다, 라, 마, 바, 오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④ 14 낫지, 고양이의 다친 다리가 다 고쳐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낫지'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배 속의 새끼를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의 '낳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5 ③ 16 ③ 17 ① 18 ④ 19 ② 20 시청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모바일 페이지의 사용 여부를 질문하여 관심을 유도하였다. 21 ④ 22 모바일 페이지와 같이 더 사용하기 편리한 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23 ④ 24 ④ 25 ③ 26 ④ 27 '현금 없는 사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이 화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지게 한다. 28 ⑤ 29 ④ 30 ④ 31 ②

- 01 <보기>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올바르게 발음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 상대방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02 '의사'의 '니'는 첫소리가 자음이 아니므로 이중 모음 [-i]로 발음해야 하지만, '희망'의 '니'는 첫소리가 자음 'ㅎ'이므로 [i]로 발음해야 한다.
- 03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의'는 이중 모음 [-i]로만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의문점'의 '니'는 [-i]로만 발음된다. 그러나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와 [i]로 발음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며 조사 '의'는 [-i]와 [i]로 발음하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

- 04 <표준 발음법> 제8항에 따라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 05 'ㅌ'은 받침에서 'ㄷ'으로 발음되므로 [바깽]으로 발음해야 한다.
- 06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연결되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지만,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받침소리가 대표음으로 바뀐 후에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 07 '여덱'은 [여덨]로 발음해야 한다.
- 08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고, 'ㅅ'의 경우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홀글], [살머], [올퍼], [할타], [목쓸]로 발음해야 한다.
- 09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르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리'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만나면 뒤엣것인 'ㄱ'만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 10 조사 '의'는 [i]로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그의/그에]로 발음하고,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알븐]으로 발음한다. 또한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오시], [누네]라고 발음하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i]로 발음하므로 [핀다]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또는 그에) 알븐 오시 누네 핀다]가 올바른 발음이다.
- 11 <보기>는 '되어'가 줄어 '돼'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② '돼고'는 '되-' 뒤에 '-어'가 붙은 경우가 아니라 '되-'와 '-고'가 붙은 경우이므로 '되고'로 표기해야 한다.
- 12 '돼'는 '되어'를 줄여 쓴 것으로, ㉠~㉢는 모두 '되-' 뒤에 '-어'가 붙은 경우가 아니므로 '되'로 써야 한다.
- 13 '않으면'은 '아니하-'와 '-으면'이 결합할 때 '아니하-'가 '않-'으로 줄어든 말이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 14 '낫다'는 '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의미이며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의 의미이다.
- 15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맞다'의 사동형은 '맞히다'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정답은 영웅이만 맞혔다.'로 표기해야 한다.
- 16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나 '불이 옮겨 타기 시작

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붙다'의 사동형은 '붙이다'이며,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라는 뜻의 단어는 '부치다'이다.

- 17 '김치찌개'는 올바른 표기이다. ② 개구쟁이, ③ 안, ④ 받아들여려고, ⑤ 바람
- 18 모바일 페이지를 이미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9 모바일 페이지의 원리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은 사용되지 않았다.
- 20 이 글의 도입부에서는 모바일 페이지가 생소할 수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신용 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모바일 페이지'라고 간단히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이미 쓰고 계신가요?'라고 모바일 페이지의 사용 여부를 질문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문장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과 그로 인한 효과를 적절히 서술했을 때	3
문장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은 서술했지만 그로 인한 효과를 서술하지 못했을 때	1

- 21 시장을 주도하는 모바일 페이지 업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 22 모바일 페이지와 같이 결제 방법이 간편한 수단이 생겨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모바일 페이지의 장점을 포함하여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을 설명했을 때	3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은 설명했지만 모바일 페이지의 장점을 포함하지 못했을 때	1

- 23 (다)는 한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고, <보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때문에 (다)가 <보기>에 비해 좀 더 현장감이 있고 한 사람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보기>가 여러 사람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느껴진다.
- 24 자료는 글의 내용과 잘 어울려야 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25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 중, 모바일 페이지로 큰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 26 이 글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27 이 뉴스에서는 모바일 페이지의 단점과 장점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전망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드러냄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를 깊이 이해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전망'과 '과제'를 포함하여 시청자들이 이 뉴스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을 서술했을 때	3
시청자들이 이 뉴스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1

- 28 이 글은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자전거 교통 법규를 안내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9 자전거는 사람이 탔을 때는 '차'로 인정되고 사람이 끌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셈이라고 하였다.
- 30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진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1 ㉠에서 글로 표현되었던 수치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보여 줌으로써, 계절 변화에 따른 월별 교통사고 발생량의 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 MEMO